

2006. 8. 25.(금) 배포

문의 / 전파방송산업팀장 이효진 (750-2420)

강경구 사무관 (750-2426) ecokang@mic.go.kr

## 케이블TV 2010년 디지털전환 완료, 정통부 적극 지원

### - 노장관-CATV업계와 간담회 개최 -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25일 오지철 케이블TV협회장, 오광성 케이블TV SO협의회장 등 업계 대표를 정보통신부로 초청하여 케이블TV 디지털전환 촉진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IPTV 등 새로운 통방 융합서비스 출현, 지상파 HD 도입 등 타 매체와 경쟁이 심화되고, 최근 디지털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등 케이블TV 사업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CATV 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CATV업계 대표들은 업계 스스로 지상파 디지털 전환 완료 시기인 201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SD급에서 HD급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CATV 디지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IPTV에 대해 동일규제 원칙 적용 및 본방송 유예 요구  
▲MMS 도입 반대 ▲케이블카드 분리 유예 ▲보급형 셋탑박스 보급 지원 등 신규 도입 서비스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현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노장관은 방통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산업이 세계추세에 뒤지지 않고 건실하게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CATV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만나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노장관은 상향 주파수 대역 확대, 케이블카드 분리 유예, 보급형 셋탑박스 등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CATV업계,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통부는 '06. 6월부터 CATV업계, 제조업체, 연구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디지털CATV 정책연구위원회」를 운영 중

그간 CATV 업계는 '05년에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의 18.6%를 차지하고 '06. 6월 현재 CATV 가입자가 1,413만 가구(총 가구수의 80%)에 이르는 등 국내 방송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으며, '05. 2월부터는 디지털 서비스를 개시하여 '06. 6월 현재 15만 3천 명의 디지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정통부는 CATV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향 주파수대역 확대(750 → 870MHz), 기가급 송수신 시스템 개발 등 기술 지원, 총 1,800억 원에 이르는 디지털 전환 용자 지원, 디지털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붙임 : CATV업계와 정책간담회 계획. 끝.

**【참고】**

**CATV업계와 정책간담회 계획**

□ 일시 : 2006. 8. 25(금), 10:00~11:00

□ 장소 : 정보통신부 중회의실(14층)

□ 참석자(16명)

- 정 통 부 (6명) : 장관, 전파방송기획단장, 홍보관리관, 전파방송 산업팀장, 융합전략팀장 등 관련팀장
- 유관기관(2명) : 디지털방송 PM, ETRI 전파방송연구단장
- SO회장단(9명)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SO협의회장, SO대표 등

□ 주요 논의 내용

- 케이블TV업계의 CATV 디지털전환 추진계획 발표
- 케이블TV업계 현안 및 건의사항 논의
  - 디지털 전환 추진, IPTV 도입 등 경쟁확대에 따른 업계 애로/ 건의 사항 수렴

□ 일정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전파방송산업팀장
10:05~10:10	장관 인사 말씀	장 관
10:10~10:20	케이블TV 디지털 활성화 방안 발표	SO협의회장
10:20~10:55	업계현안/건의사항 등	참석자
10:55~11:00	장관 맺음 말씀	장 관

□ 외부참석자

	기 업 명	성 명	직 위	비 고
1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오지철	회장	전 문화관광부 차관
2	한국케이블TV SO협의회	오광성	협의회장	씨앤엠커뮤니케이션 부회장
3	NGN	이북동	대표	SO협의회 부회장
4	CMB	이인석	대표	CMB MSO 대표
5	큐릭스	이덕선	대표	노원SO, 도봉강북SO 대표 겸임
6	티브로드	진현진	대표	티브로드 MSO 대표
7	씨앤엠커뮤니케이션	오규석	대표	씨앤엠 MSO 대표
8	CJ케이블넷	이관훈	대표	CJ케이블넷 MSO 대표
9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공성용	대표	개별SO 발전연합회장